

유연의 선택과 단명서사로 본 <유효공선행록>의 작가의식

황지현*

<차례>

1. 서론
2. 유연이 처한 상황과 그의 인물형상
 - 1) 극단적으로 설정된 상황의 의미
 - 2) 고민하는 인간 유연과 그의 가치 지향
3. 서술자에 의해 전시된 유연과 그 행적
 - 1) 유연의 선택과 그 결과
 - 2) 유연을 긍정하기 위한 서술 전략
 - 3) 양각된 고통의 기능과 의미
4. 결론을 대신하여 : 성인의 재림과 작가의식

<국문초록>

본고는 주인공 유연을 ‘고민하는 인간’으로 보고 그의 단명서사를 성인의 재림에 담긴 작가의식을 통해 파악하였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유효공선행록>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와 그 실천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다. 이 글은 효제에 집중한 논의에서 나아가 유연이 처한 상황과 그의 선택을 분석함으로써 작자가 말하고자 한 바를 살폈다. 그 결과 혼란한 시대상과 극단적인 인물 조합의 설정, 개과천선으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간 형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후 유연의 선택과 그를 조명하기 위한 서술 전략, 전면적으로 전시된 고통의 기능을 살폈다. 작자는 순의 형상을 한 유연을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자신의 시대에 소환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과 단명 서사를 삽입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절망으로 읽을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유효공선행록>, 국문장편소설, 단명서사, 선택, 고민

1. 서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역사는 삶에 대한 고민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시대에 내재된 가치와 상호적 영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변성을 띠는 한편 개인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창작물을 통해서 표출됨으로써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성질을 지닌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국문장편소설 <유효공선행록>은 당시 사회를 지배 하던 이데올로기와 그 실천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다.¹⁾ 초기 연구에서는 이상화된 주인공 유연이 효를 관철해나가는 것에 대해 작품이 표방하는 유가적 이념이 작가의식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았다.²⁾ 하지만 연구가 누적되면서 작품 중반 이후 드러나는 유연의 행적 과 그로인해 빚어지는 갈등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유효공선행록>은 유연이 부친의 핍박을 인내하는 전반부와 오해가 풀린 이후의 미진한 부자 갈등 및 유연의 부부 갈등, 아들 우성과의 부자 갈등이 펼쳐지는 후반부로 크게 나뉜다. 이 격차를 해석하는 과정에

1) 김기동,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 서울아세아문화사, 1980, 7쪽 참조. 김기동이 <유효공선행록>에 대해 “부자간 형제간의 효우를 주제로 한 윤리 소설”이라고 분류했으며 이후 이 작품을 효를 통해 접근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히 누적되었다.

2)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문과, 1989;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문과, 1990.

서 유연의 효가 주변 인물들의 희생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작가가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효 이면의 문제를 노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³⁾과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작품에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연적 성과로 그 모순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관점⁴⁾이 그것이다. 이후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폭력적인 거부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⁵⁾

하지만 작중 유연을 둘러싸고 교차하는 찬탄과 비난의 발화들, 양각된

-
- 3)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사대 국교과, 1991.
- 4)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 5)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고소설 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별얼가문의 자기변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 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학회, 2014;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 :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공혜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간 폭력의 대물림 고찰」, 『외국문학연구』 6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증 발원 과정과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 28,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8; 엄원희, 「국문장편소설 인물들의 갈등과 화병, 치유의 문제」, 『한국민족문화』 7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20.

고통과 단명서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본고는 국문장편소설군의 다층적 면모를 조망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연이 처한 현실적인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시 되어온 〈유효공선행록〉의 단명서사를 통해 작가의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2. 유연이 처한 상황과 그의 인물형상

1) 극단적으로 설정된 상황의 의미

〈유효공선행록〉의 작자가 주인공 유연을 어떤 상황 속에 위치시켰는가 하는 점은 그의 행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초반부 그려진 시대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난세에 가깝다.⁶⁾ 조정 대신이 사족(士族) 부녀를 대낮에 겁탈하려하는가 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남편에게 무고죄를 씌우기까지 한다. 한편 시종일관 혼암한 인물로 그려지는 유정경은 천자의 신임을 받는데,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풍문이 허위라 하더라도 “유정경 부자가 방탕음란무도하여 어머니를 돌로 쳐 죽이고 창첩을 독살하였으며 민가 여자를 수차례 취했다”고 알려진 그가 고관 대작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난세가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연을 둘러싼 관계는 어떠한가. 그의 고난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유정경과 유홍의 결합이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제출된 바 있다.⁷⁾ 필자는 이들의 조합에 주목하고 그것을 설정한 작자의 의도를

6) 최어진은 〈소현성록〉의 도입부에서 양부인이 딸 교영을 죽이는 것은 작품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효공선행록〉의 세계가 요정의 폭력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짚었다. 본고는 이것이 〈유효공선행록〉의 작가의식을 살피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76쪽 참조)

포착하고자 한다. 부자 삼인의 관계가 극단에 치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쪽의 책임보다는 그들의 조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연을 고집스럽게만 생각하던 유정경이 홍의 모함을 일방적으로 믿으면서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가 유연의 말을 들어보았다면 작중 많은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에 이끌린 유정경이 흔들릴 때마다 유홍이 위기를 감지하고 개입하면서 오해와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따라서 홍의 기여도 또한 상당한데, 만약 그가 간헐한 성품이라 하더라도 못한 인물이었다면 천자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홍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은 작중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태자, 강형수, 정추밀, 성어사의 눈을 통해 반복해서 제시된다. 심지어 정공은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뛰어난 자질을 보고 소문의 진위를 의심할 정도였다. 정대한 인물들조차 유홍의 간악함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유정경이 속아 넘어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혼암한 부친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빼어난 풍모를 지닌 아우 사이에서 유연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자못 심각하며, 이들의 조합은 돌파구를 찾으려는 유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유정경과 유홍에 대한 작자의 설정은 유연의 고난을 심화시키는 장치로써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정치되거나 개과천선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유효공선행록>은 주동인물의 덕행에 감화되어 환골탈태하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유홍은 효우군자(孝友君子)인 형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유홍의 욕망은 “유연이라는 인간 자체를 제거하려는 욕망”⁸⁾이다. 이는 개

7) 양혜란(1998)은 부자갈등이 이 작품의 핵심이며 문제의 본질은 부친의 불명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시광(2009)은 유홍의 열등감이 계후갈등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드러낸다는 점을 조명했다.

8) 장시광은 유홍이 일으키는 갈등이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로 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당대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

과천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유정경의 혼암함 또한 개과천선의 대상에서 벗어난다.⁹⁾ 따라서 작자가 악인의 개과천선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개과천선으로 인한 화해는 반동인물의 성품이 바뀐 이후 저절로 관계에 흡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효제가 지닌 감화력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면모를 유지하는 인물과 화해하는 것은 감화로 모든 갈등이 일시에 해소되는 서사와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동 인물의 구체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러한 서사를 취한 것은 난관을 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작자의 고민을 드러내는 동시에 작품의 현실적인 분위기를 심화시킨다. 혼란한 시대상과 극단적인 인물 조합의 설정, 개과천선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은 작자가 주인공 유연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했음을 시사한다.

2) 고민하는 인간 유연과 그의 가치 지향

험난한 조건을 설정한 작자는 그것들을 돌파해내는 인물로서 유연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작중 대효(大孝)로 일컬어지는 유연의 행적은 지나친 관념성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희생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그의 가치 지향이 효제 혹은 기문영달로 온전히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유연의 복합적인 면모는 유문으로 복귀한 이후 정공과 대립하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박상규가 정공의 부탁으로 찾아오기 전까지 유연은

편적 조건과 맞닿아 있다고 한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장시광(2009), 앞의 논문, 223쪽)

- 9) 유흥과 마찬가지로 유정경의 결함 또한 개과천선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승복은 “편벽되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정경의 이러한 성격은 선, 불선의 문제도 아니고 따라서 개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승복(1991), 앞의 논문, 171쪽 참조)

정소저의 일을 조용히 처리해 그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는다.¹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친의 원수라는 점과 유정경 및 유문의 입지를 재고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복잡한 내면이 드러난다. 정공이 딸을 개가시키려 했던 것에 대한 자존심 문제, 정소저의 고난에 대한 민망함, 말을 옮기는 박상규에 대한 불만이 뒤엉켜 있는 것이다.¹¹⁾ 따라서 그가 지닌 복합성을 파악하는 것은 작자의 의도와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우순 고사의 서사구조를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연을 순(舜)에 빗대며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순의 형상은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덧씌워지는데, 친척인 유정경은 천자 앞에서 “인니 향당이 다 저를 대순 이후 한 사람으로 이른다”고 말하기까지 한다.¹³⁾ 여기서 더 나아가 유연은 공자와 안연에 비견된다.¹⁴⁾ 난세에 요순지

10) “뉴상세 덕소를 써날적 창두를 보니여 부인 퍼부를 아랴고 경스의 니르러는 부친고 고치못하여 그루하나 본심은 덩부의 통하여 찾고즈히디 일이 미쳐 결을치 못하였더니 홀연 이 말을 드르미 도로혀 덩공의 처스를 증헌하여 화기 스라지고 분연헌 기운 이 니러나나...” <유효공선행록> 권지칠, 8~9면.

11) “상세 처음의 덩공의 처시 전도헌물 통하여 크게 일당을 조로고즈 하여 쏘헌 덩시 단발위리흐미 즈가의 박힘의 잇는지라. 늣다려 잇는 곳을 쾌히 이를 노치 업셔 심중의 쥬져헌는 가운디 박성이 비록 지기나 덩공의 즈달궂튼 사람이라. 분쥬하여 온가지로 즈가를 공치헌며 힐문헌물 슬히녀겨 짐쥬 미물빗츠로 꾸지져 그 말이 덩공의 귀에 가게 하더니...” <유효공선행록> 권지칠, 36면.

12) 우순의 고사와 <유효공선행록>의 상동성은 박일용(199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김문희(2015)는 이를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검토하면서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효공선행록>의 메인스토리인 유연의 서사는 인물 구성, 사건 구성, 구체적 서술에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 『서경』의 <우서>에서 나타나는 우순의 효우담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을 읽는 당대 독자라면 인물 구성, 사건 구성, 구체적 서술에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 『서경』의 <우서>의 우순의 서사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김문희(2015), 앞의 논문, 221~222쪽 참조)

13) 김문희(2015), 위의 논문, 219~221쪽 참조.

14) 그의 단명(短命)에 대해 정소저는 뜻을 이루지 못한 공자와 안연의 죽음에 기대어

도(堯舜之道)를 구현하고자 했으면서도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한 공자, 안연과 유연을 겹쳐놓은 것은 작품 전체의 의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⁵⁾

그렇다면 유연은 어떤 가치를 추구한 인물인가. 물론 〈유효공선행록〉에서 효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번민하는 유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효(孝)와 의(義), 인정(人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의나 인정을 좇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에 기대어 돌아보려는가 하면,¹⁶⁾ 귀양길에서 정소저와 조우한 후 반항이나 고민하다가 거절하는 장면¹⁷⁾은 만약 유연이 부친의 명을 맹목적으로 좇는 인물이었다면 성립될 수 없다. 더구나 곤궁에 빠진 정소저와 재회하자 “버리면 의가 아니다”¹⁸⁾ 라고 하며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데, 이는 그가 의(義)

그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태상 유선도 안자와 유연을 동치시킨다. 한편 유희의 입을 통해 안연이 공자의 덕을 감탄하는 구절을 발화케 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승상이 과연 단명하미 울코 쓰흔 박명하미 울토다. 안연의 어질미 삼십의 도를 일우 못하여서 죽고 부즈의 성덕으로 털환턴하샤 도로의 늙으시니 그 경시 복을 받지 못하고 현지 슈를 누리지 못하미 이긋튼지라.”〈유효공선행록〉 권지십이, 60면; “저 즈순애 사립되오미 안즈의 춘풍긋흔 화기오 대순의 성효를 겸하여 그 특이흔 중 효와 청현흔 도덕이 칠십즈의 벗되미 붓그럽지 아니되 다만 인륜의 슬픈 거슬 먹음어 민턴의 우름이 굿칠덕이 업고 당츠시하여도 군상기 텨되하여 희외의 중쉬되여시니 그 명되 다천하고 시운이 부제하미 이긋튼지라. 엇지 그린이 시절을 만나지 못하미 아니리오”〈유효공선행록〉 권지오, 45면; “홍이 상셔의 거동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니고 탄식왈 양지미피오 찬지기션하며 텨지지전이러니 홀연지후로다 하니 오날이야 소테 형의 덕을 밋기 어려오를 알래라. 쇼제 비록 몸이 복희의 이시나 기과츠칙하여 몰신토록 잊지 아니리오”〈유효공선행록〉 권지육, 64면.

15) 김문희(2015)는 〈유효공선행록〉과 우순 고사의 상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중반부 이후의 서사가 독립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유연의 죽음에 대해 공자와 안연을 비유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때 작자는 중후반부 유연의 인물형상이 성인의 행적에 크게 이탈했다고 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16) “나의 박절하미 인정이 아니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오, 10면.

17) “반항이나 생각다가 이러 하직 왈”, 〈유효공선행록〉 권지사, 36면.

18) “당츠시 하여 버리면 의 아니라”〈유효공선행록〉 권지오, 1면.

또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부명(父命)으로 불의를 행한다면 그 또한 불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¹⁹⁾ 유희의 처벌에 관여하는 과정에도 상황을 고려한 가변적인 판단이 엿보인다. 유연 또한 홍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해배에 힘써달라는 성 어사의 부탁에 공/사(公私)의 구분을 든 것으로 보아, 사적인 목적으로 조정의 공문을 굽히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전개하면서까지 그를 살리려 한다.²⁰⁾ 홍의 목숨과 자신의 공적 책무 가운데 전자를 선택한 것이며, 홍의 해배와 그것이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을 저울질 할 때는 후자를 더 중시한 것이다.

이상으로 보건데 결국 “무엇이 더 중한가?”에 대한 판단은 행위의 주체인 유연에게 있다. 여러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고뇌하는 인간’으로서의 형상이 유연에게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물론 유가의 이데올로기에서 효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들은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유효공선행록>의 작자가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로에 선 인간이다.²¹⁾ 불효와 불의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의 정과

19) “심중의 심각하더 대인이 비록 거절하라 하시나 좃아 이 형상을 보고 거두지 아니미 이도 부모 말슴을 역경하야 성덕을 상히오미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오, 3~4면.

20) 조혜란은 이에 대해 “반역의 무리에 가담해 권력을 남용한 신하가 자신의 동생이었을 때 유연 역시 공/사 영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짐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가치 판단이 흐려지거나 중지되는 점을 지적했다. (조혜란(2015), 앞의 논문, 172~173쪽 참조)

21) 유연이 효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가치 또한 중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문면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행위를 관념적 이데올로기의 추구로만 귀결시키는 것은 작중 그의 가변적 판단기준들을 간과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부친에 대한 효가 양립할 수 없다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다른 한 쪽을 어느 선까지 희생시킬 수 있으며 그 선택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갈등의 낭만적인 해결을 그리는 다른 작품들과 단연 차별화되는 〈유효공선행록〉의 특징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내가 유연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길을 갔을 것인가?”를 반추(反芻)하게 한다. 작자가 관념적인 효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유연은 내적 고뇌 없이 건조하게 그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은 갈림길에 서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선택을 해나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스럽게 굴기도 하고, 부인을 깊이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 노심초사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노출하고 있다. 우순 고사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성인도 알려주지 않은 험난한 선택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유효공선행록〉의 작자는 유연이라는 출신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가시밭길 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3. 서술자에 의해 전시된 유연과 그 행적

1) 유연의 선택과 그 결과

〈유효공선행록〉의 서사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행해진 유연의 선택과 그 결과들로 얽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들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유연이 맞닥뜨린 첫 번째 선택은 “불의를 저지르는 부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논어》와 《맹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물음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유연은 이에 대해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

는데, 초반부에서는 성인의 도를 들어 직간함으로써 효와 의를 모두 추구하려 한다. 하지만 자신을 폐장(廢長)한 부친이 과거 응시를 빌미로 자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천자 앞에서 가내사(家內事)가 도마에 오르자 태도를 바꾼다. 직간을 그치고 부친의 감정이라도 편안케 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대해 맹목적으로 효를 좇는다거나 고통 끝에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지적²²⁾이 있었으나 필자는 이 또한 상황 판단에 근거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유연은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내 갈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직간이 무용(無用)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명목상으로 부자지간이라고는 하나 구적(仇敵)이나 다름없다”²³⁾고 외치는 부친과 관계라도 회복되기를 원했던 유연의 선택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⁴⁾

두 번째는 “부친이 불의를 저지르도록 강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특히 정소저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형상화된다. 유연과 정소저의 부부 관계는 유경정 부자 삼인의 갈등 속에서 술한 질곡을 거친다.²⁵⁾ 하지만 직접 그녀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유연은 자신이 할

22) 조혜란(2015)은 처음에는 의를 추구했으나 이 시점에서는 심신 미약 상태가 되어 판단을 유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은임(2019)은 맹목적인 동조의 태도로 보면서 시비판단을 중지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효가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당대의 현실에서 아들은 부당한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부친의 폐약을 견딘 것은 관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본 이지영(2015)의 논의는 다른 관점을 시사한다.

23) “명칭 부지나 실위 구적이니 너 님의 죽으려 허거늘 엇지 괴로이 슬와두고 보치느뇨” <유효공선행록> 권지이, 58면.

24) 이후의 서술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뉴공이 또 혼 핏계 업서 보치기를 긋치니 흥이 크게 불쾌이 너기더리”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13면.

25) 유배지로 가던 중 마주쳤을 때는 한참 고민하다가 부명을 근거로 거절하지만 재회하고 위기에 처한 모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義)와 부친의 명을 일반적으로 좇느라 성덕을 상할 수 없다는 효(孝)를 모두 들어 정소저와 부부의 연을 잇는다. 하지만 부친의 서신이 도착하자 유연은 다시금 정소저를 거절하는데 그 서신에 대한 답으로 정소저를 다시 받아들였던 일에 대해 ‘측은함’과 “정소저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

수 있는 한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²⁶⁾ 유정경이 무고한 정소저의 출거를 명하자 유연은 그를 좇지만 이 사실만으로 효를 위해 정소저를 희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²⁷⁾

당시 병이 중후온더 티를 더은 즉 죽으미 쉬오니 제 부형이 조식 스오논은
줄은 모로고 우리를 원망홀가 하느니 입의 너치미 죽흐니 엇지 하천의 상된
거조를 하여 선실기도하리잇가. 복원 디인은 지삼 살피소서. 공이 작실 왓 네
감이 노부의 명을 조당하고 득죄흔 음부를 앓기는다. 학시 부친의 거동을 보미
홀일 업슨지라. 훈갓 흥의 말을 좃츠니 즈기 말은 밍변준론이라도 능히 홀일
업슬 줄 알미 다만 진퇴를 어려워 침음홀시 쇼제…(중략)…죽으려흐니 공이
더로 왓 연이 진실노 내 명을 거스려 천녀를 앓기는다. 드디여 친이 느려 쇼저
를 치려흐니 학시 그 허물을 출하리 즈당하려하고 나으가…(중략)…발서 흥

으니 부친이 용서하실 것으로 알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6) 유연은 귀양길에서 정소저와 두 번째 재회했을 때 돌아갈 곳이 사라진 정소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녀를 거두었으며, 뒤늦게 정공이 상소문을 올려 유정경을 해치려 했음을 알고 다시 거절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몸을 보증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부부의 도를 맺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녀가 머물 곳을 마련해 평안케 하겠다고 말한다. “부인이 상을 위하여 니친분찬홀를 감격지 아닌거시 아니라. 세상시 뜻과 갓지 못하기로 스스로 오기의 잔잉박형홀를 형흐였더니 부인이 춤니 생각기를 과도이하여 거죄 이지경의 이시니 대인이 드르시나 또한 용서하시미 계실지라. 감이 자단하여 하쳐의 도라가를 청흐느니 부인은 관심하여 병신을 상히오지말나.”, <유효공선행록> 권지오, 1면: “혹시 저의 유한당당흔 거조와 풍영쇄락흔 풍용으로 뼈 혼낫 차환의게 붓들너 혈혈무탁흔 조죄를 참아 보지못홀너니…(중략)…또흔 흥장이 산란하여 성인의 물결이 어려워 강잉답왓…(중략)…설우므로써 몸을 가비아 이 하여 부모의 성혹호신 유테를 슈화의 더지지 말지어다. 심이 타일 정의를 엇지 못하느 혼 곳 별스를 어더 가친기 품호고 부인의 빅년을 브치게 하리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오, 30~31면.
- 27) 이미 부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고 자신의 어떤 인사도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연에게 정소저의 출거를 막을 힘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연이 부친의 명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맹목적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정소저를 희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 기식을 알고 미미히 것거지게 힘을 허여치니 흥이 그 형의 조곰도 측은지심이 업스를 보고 또 흥 당시 죽으면 추밀의 노귀 이러날가 허야 썰니 아아를 향하여 관서호를 청하니...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25~27면.

결과적으로 유연은 정소저의 출거를 막지 못했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부명(父命) 앞에서 망설이기까지 한다. 그는 음행의 죄목에 대해 “사람됨이 높고 구차치 아니니 음일한 행실이 있을 리 없다”고 선을 긋는²⁸⁾ 한편 매질하려는 유정경에게 “내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개유하며, 끝내 매를 들 것을 강요당하면서도 차마 따르지 못한다. 그 기색을 눈치 챈 정소저가 자결을 시도하고 분노한 유정경이 직접 매를 드는 파행이 이어지자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을 다잡는다. 한편 매가 꺾어질 정도로 친 것 또한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한다. 유연은 자신의 말이 부친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를 그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흥 하나 뿐이다. 실제로 유흥은 유연이 망설임 없이 치는 것을 보고 정공이 딸의 죽음에 보복할 것을 우려하며 부친에게 간해 매질을 그치게 만든다. 유연은 부명에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 정소저에게 혹독한 매를 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타개하고 정소저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²⁹⁾

그렇다면 부친의 오해가 풀리고 유문으로 복귀한 이후는 어떠한가. 이제

28) 유연은 음행과 불효의 죄명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부친이 이미 불효를 거론한 시점에서 정소저를 위해 발명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을 능멸했다는 부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저당네 스텝되오미 높고 구차치 아니흔지라. 엇지 음일흔 형실이 이시리잇고. 다만 효성이 부족하여 대인 원망흔 죄 칠거의 범흐오니 명더로 제 집의 도라 보너리이다.”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22면.

29) 만약 유연이 효를 좇는다는 일념에 매몰되었다면 망설이는 과정은 생략되었어야 한다. 한편 자신이 가볍게 친다면 유흥의 모함도 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는 고난을 뒤로 하고 영화를 누릴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연의 내면은 더욱 고단해진다. 여전히 혼암한 유정경은 파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잘못을 흥에게 미루며 죄책감을 덜기에 여념이 없다.³⁰⁾ 결국 안팎으로 황폐화된 기문을 복구하는 것 또한 유연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 단계에서 유연에게 주어진 과제는 “불의를 행하던 부친이 과오를 깨달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순의 고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길이기에 오롯이 유연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한다.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모해를 견디기만 하면 되었던 전반부와 달리 중반 이후에는 유연이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하는 입장이다.³¹⁾ 산적한 문제들을 나열하면 괴로워하는 부친의 감정 위로³²⁾, 아우의 목숨 구제³³⁾, 유문 내에서 부친과 아우의 입지 보호³⁴⁾, 부친과 유문 전체의 실추된 명예 복구³⁵⁾, 정문과의 관계 회복 및 재설정³⁶⁾, 계후 정리로 갈등 재발 방지³⁷⁾를

30) 유연과 유정경의 불화는 유정경이 개과한 뒤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정경이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이지영(2015), 앞의 논문, 102쪽 참조)

31) 선행연구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단절적인 분위기, 상이한 유연의 인물형상이 지적된 것은 이러한 상황과 주어진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2) 유연은 자신의 몸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유정경을 온화한 말로 위로하며 부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설파의 스기 온후하고 안식이 화평하여 도금도 어즈러운 거동이 업스니 공이 또한 마음이 편하여...” <유효공선행록> 권지육, 29면.

33) 유연 또한 흥의 죄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쉽사리 그를 구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흥의 목숨과 대신으로서의 책무 가운데 전자를 택하게 되는데 아우의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 나섰다고 해서 그것을 맹목적인 효제에 침몰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34) 자칫하면 삼족을 멸할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점에서 유문 내에서 연을 폐장했던 유정경을 향한 원망이 상당했을 것이다. 유연이 부친의 명예와 아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했음을 반증한다. 기문 전체에서 종통을 잇는 적장자인 유흥이 역모를 꾸민 만귀비의 일당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유문에서는 앞장서서 그를 논획하면서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35) 조정 대신들 앞에서 볼 낫이 없는 것은 물론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정공, 유흥으로 인해 파직당한 박상규, 옥사 문제로 원수가 되어버린 강형수의 경우 권세 높은

들 수 있다.

전방위에 걸친 개입에서 유연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도(正道)와 순리(順理)에 따른 회복이다. 실제로 <유효공선행록>은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어 작자의 의도적 배치가 엿보인다. 먼저 유연은 복장(復長) 전에 조카인 백경을 장자로 맞아 잡음을 예방했다. 선제(先帝)의 삼년상이 끝나고 정소저의 두발이 다 자란 후 종족 앞에서 폐장 문서를 과기하고 적장자로서 복귀하며 총부(總婦)가 된 정소저와 부부로 인정받는다. 이날 유정경, 유연, 정소저 삼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대목에서 “평생 남은 한이 없어하더라”³⁸⁾는 서술은 화해가 가문 내 입지를 회복하는 공적인 승인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튿날 비로소 정소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유연의 모습에서 순리에 따른 관계 회복이 더욱 강조된다.³⁹⁾ 그 다음 정공과 교류하고 흥이 돌아와 삼부자가 인륜을 이어간다는 순서는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높인다.⁴⁰⁾ 선행연구에서는 오해가 풀린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지적하

가문이거나 덕망이 자자해 조정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유정경과 유문의 대외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 36) 정공과의 관계 재설정엔 유정경의 명예 회복, 유문의 입지 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후반부 유연이 유정경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주력하면서 정공을 치부하고 정소저와 아들 우성에게까지 매몰찬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해 그의 선택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함께 현실적인 맥락들이 다양하게 검토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 37) 폐장과 복장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던 유연의 입장에서 입후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유흥과 자신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고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8) “부즈의 유흥훈 정이 인륜의 지극하니 상세 감은하고 늦겨 평성 유흥이 업서하더라” <유효공선행록> 권지팔, 14면.
- 39) 유연은 비구니의 모습을 한 정소저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다. 원래 유연은 자신이 유럽이니 예법에 맞게 정소저의 두발이 길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려 했었다. 유정경이 서둘러 그녀를 유문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람에 전후의 일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다.

였으나, 순리에 따른 관계회복의 서사가 거시적 틀 속에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 삼인의 갈등은 서로를 살해하려 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외적인 가문의 입지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연의 인내와 희생은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화해를 이끌어내었다.⁴¹⁾ 흥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유정경의 마음을 돌렸으며 흥의 아들로 종통을 잇게 함으로써 그의 미진한 불만을 잠재우고 불안한 입지까지도 보완하고자 했다. 배경과 우성의 우애가 강조되는 결말은 파국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유연의 공적이며 유문의 평화가 다음 세대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시사한다.⁴²⁾

2) 유연을 긍정하기 위한 서술 전략

〈유효공선행록〉은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던 유연이 갈등을 해소하고 가문을 번영으로 이끄는 길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의 내적 고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치열하게 모색했다. 그 가운데 작자는 철저하게 유연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효만을 인정하는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다.⁴³⁾ 하지만 작중 유연을 향한 찬탄과 함께 비난과 오해가 뒤엉켜 있어 상이한 해석을 낳아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서술자의 서술

40) 유연이 추구한 화해의 순리와 그에 맞는 순서는 유정경에 의해 상당한 방해를 받은 바 있기에 그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두발이 다 자란 정소저와 조우하려던 유연의 계획이 틀어진 것인데, 유정경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녀를 부르면서 서로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41) “가니 화평하여 거문고 곡죄 조화하고 띄옥소리 묵연하니 규문이 맡가 화환 괴운이 출양갓더라”〈유효공선행록〉 권지십이, 5면.

42) “형데 화목하미 시절의 일흠나니라”〈유효공선행록〉 권지십이, 77면.

43) “이 작품은 철저히 유연 중심으로 서술되는 작품 논리 속에서 그가 행하는 효의 방식과 그가 효를 행하는 대상만이 인정된다는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다.”(이지하(2005), 앞의 논문, 185쪽 참조)

전략을 중심으로 상충하는 지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순과 공자, 안연에 견주며 유연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서술과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비판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유연은 때때로 인정(人情)과 인자(人子)의 도에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작자는 다른 인물들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그를 지적한 것일까. 유연에 대한 비판은 작품 초반부에도 등장하며 중반 이후 정소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발화된다. 이에 대해 다른 인물들이 그 과도함을 비난하는데, 박상규는 절교를 선언하기까지 한다.⁴⁴⁾

하지만 표면적인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여 작자도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변 인물들의 발화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유연에 대한 비판 → 유연의 깊은 뜻과 의도를 뒤늦게 깨달음 → 출인한 유연에 대한 감탄’이라는 도식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평범한 인물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유연을 전면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술자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초반부 유연을 향한 비난을 살펴보면, 그가 정소저에게 전혀 은정을 품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주씨와 난향이 그를 지적하거나 원망하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주씨는 뒤늦게 유연의 마음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며 난향 또한 정소저의 말을 듣고 감복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유연이 정소저에게 연연하는 모습들이 문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씨와 난향의 비판 효과는 상쇄되고 도리어 ‘깊은 속내를 지닌 유연’의 형상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⁴⁵⁾

44) 절교 선언 직후 오해였음이 드러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45) 주씨는 이후 정소저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유연을 질책하다가 그 뜻을 뒤늦게 깨닫고 기뻐한다. “니 임의 유립의 충슈하여 산인의 모양을 혼 너즈를 부부로 일크라 상디흐미 가치아니니 제 두발이 즈라고 형실이 세상 얼굴이 된 후 예로 서로 보기 늦지 아니하니 서모도 니 뜻을 아르실지라 뼈금 의심치 말소소서. 주시 텅파의 암희하여”

그렇다면 강도 높게 힐난했던 박상규의 경우를 보자. 유연과 절친한 벗인 동시에 정공의 친필이기도 한 박상규는 양쪽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말을 옹기고 기색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이유로 유연은 그와 친밀하면서도 불만을 품으며, 한편으로는 그에게 한 말이 정공에게 전해질 것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 박상규는 유연의 본심을 눈치 채지 못하고 그를 맹렬하게 비난하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반복된다.⁴⁶⁾ 절교를 선언한 장면도 마찬가지이다. 박상규는 이때도 유연의 언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분개하지만 곧바로 강형수와 만나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는 ‘취한 것이 깬 듯’ 하여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기까지 한다. 오해였다는 사실이 제시된 직후 강형수와 정공의 입을 통해 유연에 대한 칭송이 연달아 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이 주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또한 다른 이들은 헤아리기 어려운 압도적인 인간으로서의 유연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연을 둘러싼 오해를 살펴보겠다. <유효공선행록>에는 주변 인물들이 유연의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대목이 종종 등장한다. 유흥의 옥사를 의논하러 온 조정대신들이나 그의 해배를 바라며 유연을 떠보는

<유효공선행록> 권지팔, 66면. 이 외에 주씨가 난향에게 유연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 또한 있다. “난향이 평일 학스의 깃픈 근심은 아지 못하고 저의 소저기 미물하던 일을 한하여 뉴싱의게 고치 안이코 주시고 고 왈…(중략)…주시 왈 네 알기를 그릇하였도다상공의 인즈히시미 계견의 니르히 호싱지심이 잇거늘 엇지 도로혀 부인의 병의 요동치 아니히리오”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16~17면.

46) “박성이 아연 왈 형이 인경 업노뇨…(중략)…박성은 미물타 하고 그 뜻을 몰나 다른 말노 한훤하고 이옥고 도로가니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64~65면; “싱이 무류하야 니러하직 왈 소제 십연 교도를 크게 위웃노니 전일 선성의 말이 참아 인자의 일이 아니니 소대 감이 득갈 혼가지로 하야 형데로 칭치 못히리니 선성은 당돌흔물 고이히 너가지 말나…(중략)…상규 첩과의 취흔거시 쉰듯하여 또흔 디소 왈 소대 또흔 주순의 계규의 썩질넌다” <유효공선행록> 권지칠, 11~21면.

성어사 모두 유연의 마음 한 구석에 아우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을 것으로 짐작하다가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크게 감탄한다.⁴⁷⁾ 오해였음이 밝혀지는 장면을 통해 작자는 유연이라는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서술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오해와 함께 뛰어난 인물들이 유연의 지기(知己)로 자리매김하며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지점도 흥미롭다. 작중 유연을 깊이 이해했던 인물로 정소저⁴⁸⁾와 강형수⁴⁹⁾, 태자⁵⁰⁾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유연을 변호하는 대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소저는 유연을 원망하는 부친에게 도리어 그를 두호하며, 강형수 또한 정공

47) “니각너 처음은 싱각기를 저의 형데 불목흠미 슝의 꿩즈하니 흥의 죄를 다사리미 연의 수중의 이실가 흐엿더니...”<유효공선행록> 권지육, 38면; “성공이 아연 답왈 만일 이긋트면 즘현의 죄 중흠미 용서치 못흐리니 공이 쏘흔 한을 프지 아닛는다”<유효공선행록> 권지구, 48~49면.

48) 정소저는 작품 초반부터 유연의 숨은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지기(知己)이자 조력자로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는 임종의 순간에 부인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헤아려준 것에 대해 관포지교(管鮑之交)를 일컬으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던하의 날을 아는 이 업거늘 덩시 능히 내 마음을 빗최여” <유효공선행록> 권지삼, 29면; “우리 부부 소시의 잠간 구기나 정의를 상히온비 엮고 부인이 괴로이 익을 만나되 원망치 아니른 나의 효의를 알미오. 적소의셔 산간 아스하기를 구하고 나의 잇는 곳을 좇지아니른 나의 형세 어려오를 알미오. 도라오미 혼집의 삼년을 처하여 서로 보지 아니흐디 부인이 날노빠 박정타 아니른 나의 네를 중히너기를 알미라. 넷날 관포와 슝미 부인과 흑성의게 이시니 비록 니르지아니나 심복흠미오. 금일 지기 정분긋츠니 비록 늦거오나 만시 유희하니 엿지 설설이 슬허허리오.”<유효공선행록> 권지십이, 51~52면.

49) 강형수는 유우성의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유연이 울음해하자 그 마음을 간파한 유일한 인물이며, 다른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상세 종일토록 승흥 화기 업서공의 즐겨흐는 거동과 너도하니 강어시 그 뜻을 알고 망모 싱각흐는 성효를 알고 그 영화를 근심홀 뜻을 항복흐나 기어 빅관은 아니 의심히러 업더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십, 42면.

50) 태자와 유연은 일찍 서로를 알아본다. 한편 유희의 옥사를 놓고 중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진 사람의 효우를 상하지 앓겠다”며 그의 목숨을 용서하기까지 한다. <유효공선행록> 권지육, 51면.

에게 직접적으로 유연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¹⁾ 유연에게 정소저와 강형수, 태자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조력하는 인물들이다. 이는 작자가 유연과 지기(知己)라 칭할만한 또 다른 뛰어난 인물들을 배치하여 유연의 행적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돋보이도록 한 서술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연의 이른 죽음 직후 정소저와 강형수, 천자에 즉위했던 태자가 잇달아 세상을 등지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정소저는 그의 단명에 대해 공자와 안연에 비하는 평을 한 후 피를 토하고 죽으며, 평소 지기로 지내던 강형수와 박상규 또한 삶의 의지를 잃고는 유연의 곁에 장해달라는 유연을 남긴다. 그들의 죽음조차도 유연의 죽음을 추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허망할 정도로 잇달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유연을 조명하는 역할로서 그들의 소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유효공선행록>의 작자는 유연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를 긍정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전략을 활용하는 한편 세심한 구성을 고민했음이 드러난다.

3) 양각된 고통의 기능과 의미

유연은 성인으로 추앙받으며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만 그 자신은 물론 주변인물들이 치른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고통은 그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의 작자는 그를 둘러싼 고통을 축소하기는

51) “대인은 저의 소녀 박디흐를 흐치 말소셔. 인지되여 그 아비 히흐는 처즈를 누런치 못흐미니 저의 그르미 아녀 소녀의 팔지니이다..(중략)…전후의 곡절이 만흐디 대인이 즈시 아지못흐시무로 흐긔 뉴성이 소녀 거절흐미 미물홀만 알으시고 사체 그란줄을 씨닷지 못흐시니” <유효공선행록> 권지칠, 57~58면; “강성 왈 상국의 말슴이 즈순을 아지 못흐미라” <유효공선행록> 권지칠, 62면.

커녕 전면에 배치해 독자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초반부터 유연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아버지와 해칠 기회만 엿보는 동생으로 인해 고통 받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간다.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군자형 인물은 대개 세사(世事)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지만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 체념과는 구분된다. 그의 체념적 정조는 평생을 괴롭힌 토혈 증세와 함께 고통스러운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⁵²⁾ 유연이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정소저와 아들 우성도 험난한 시간을 보낸다.⁵³⁾

유연 본인의 고통은 물론 정소저와 우성의 고난은 그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런데 작자가 그것을 의도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유효공선행록>은 서술자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덕군자부터 혼암한 필부(匹夫)에 이르기까지 ‘부자지정(父子之情)은 천륜’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이는 부자의 정에 대한 상투적 문구라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정까지도 희생하는 연의 출인(出人)함을 부각시키

52) 이지영(2015)은 유연이 극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신체적 병증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탁원정은(2016) 국문장편소설의 정신적 강박증은 이념과 제도가 병증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사회의 이념과 제도가 생산한 문화적 질병의 한 양상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유연의 경우를 ‘이념의 강박증’으로 분류했다.

53) 정소저의 경우 유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연이 복장하면서 정소저와 함께 사당에 알현할 때 ‘일호은근흔 빗치 업사니 므음의 상세 정의를 그치므로 아라상삼하여 날이 늦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뜻밖에 연이 찾아오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고난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던 정소저가 복장연에서 유연의 태도를 보고 크게 상심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유연이 자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어린 우성은 살얼음판 같은 일상 속에서 냉담한 아버지의 태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54) 유정경과 유연, 천자와 태자, 유연과 유우성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이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반복되고 있다.

기 위해 작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부인과 자식의 괴로움을 알면 서도 그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유연의 괴로운 내면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정소저와 우성의 고통이 유연의 서사에 포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소저의 이야기는 작품 전개에서 중심적인 서사를 형성하기 보다는 유연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⁵⁵⁾ 정소저와 우성의 고난은 유연의 희생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다. 개별 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작자는 주변 인물들의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오히려 유연을 돋보이게 만들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별 대가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관찰시키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다. 유연의 경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자지정(父子之情)마저도 희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견주어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유연은 물론 그의 주변인물들이 치른 대가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상세하게 서술된 것은 유연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작자에 의해 의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도적으로 부각된 희생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출인(出人)함을 강조하는 도구로써 활용된 것이다.⁵⁶⁾

55) 이지하는 “부인 정씨의 이야기는 작품 전개에서 중심적 서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연의 이야기에 부속된 느낌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연과 관련된 사건 서술에 비해 정씨에 대한 이야기 분량이 현격히 소략한 점을 들었다. (이지하(2005), 앞의 논문, 192쪽 참조)

56) 독자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향유되었는가 하는 점은 본고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 작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유효공선행록〉의 독자들 가운데 유연의 언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소저나 유우성의 고난에 이입한 이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필자는 유연과 그 주변 인물들의 고통을 전시함으로써 작자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가 하는 점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성인의 재림과 작가의식

지금까지 살펴본 유연에 대한 서술과 연작 후편인 <유씨삼대록>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추모(追慕)⁵⁷⁾를 종합해보면 그가 숭고한 영웅으로서 이상화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의 삶에 내재된 고통과 비극성은 숭고함을 배가시킨다.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상적 장자의 형상은 가문 중심적 시각에서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는 소망태의 발현으로 독해된 바 있다.⁵⁸⁾ 본고는 이러한 소망태를 작자의 시대 인식과 연결하여 자신이 처한 시대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그 향방을 통해 작가의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유효공선행록>이 우순(虞舜) 효행담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찍 밝혀졌다. 작자는 지고한 효의 표본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순의 형상으로서 유연을 자신의 시대에 소환했다. 그런데 유연은 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단함과 절망감으로 고통 받는다. 작품 후반부 유문이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도 그의 내면은 쉽사리 안정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 극복 이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는 타 작품의 주동인물들과는 달리 유연과 정소저는 40세 언저리의 이른 나이로 단명하게 된다.⁵⁹⁾ 따라서 고대의 전설적 성인이 소환된 맥락과 그 상징성을 단명

57) <유씨삼대록>에서는 가문의 경사스러운 일을 유연의 공으로 돌리며 그를 추모한다. 한편 유우성의 장자 유세기가 성품은 물론 생김새까지도 유연을 방불한다는 설정으로 작중 가장 정대한 군자형 인물로서 등장한다. 유우성과 이소저조차도 아들 세기를 보면서 유연을 떠올리고 그를 추모하곤 한다.

58) “유연과 같은 이상적 장자의 형상화는 가문중심적 시각에서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싶은 소망태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이지하(2013), 앞의 논문, 357쪽 참조)

59) 임치균(1989)은 단명서사에 대해서는 실존인물로 보이도록 하여 내용을 사실화 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보았다. 한편 정혜경(2014)은 그의 영광이 사후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설정을 통해 효제의 실천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확장하고 독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살폈다.

서사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순 고사를 차용하며 대순(大舜)을 소환한 것은 그만큼 작자가 자신의 시대에 성인의 존재를 절박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작품 초반부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듯이 조정에는 뇌물이 횡행하고 군주는 신하를 가려내는 안목이 없다. 대낮에 시죽 부녀를 겁탈할 정도로 풍습은 타락했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시비를 가리는 기능은 마비되었다. 부자의 인륜은 천자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무너져 상대를 해하기 바쁘다. 선과 악은 도치되어 악이 선을 몰아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은 순과 같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타개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작자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순을 소환하고 극단적 상황 속에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길을 보여준다. 고사를 재현하면서도 악인의 감화와 개과천선을 배제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유연의 행적을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고자 한 것이다. 고전소설 작품군에서 돌출되어있는 <유효공선행록>의 현실적 서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효와 불의, 불인의 갈림길에서 끊임 없이 고뇌하는 유연과 그의 선택들은 작자가 인식한 험난한 시대상과 함께 그것을 돌파하고자한 의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우순 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통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성인의 형상으로 유연을 소환한 것에는 역설적으로 ‘성인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단서가 된다. 유연은 순의 길을 가고자 한다. 차이가 있다면 더 이상 요순(堯舜)이 구가하던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연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며 겪는 좌절들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적 한계를 작자가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유연을 괴롭힌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단명 서사는 성인의 재림에 내포된 숙명적인 비극인 셈이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소환된 유연은 시대를 벗어난 존재라는 점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유연은 순의 재림(再臨)이지만 오히려 이 점에서

공자, 안연과 더 가깝다.⁶⁰⁾ 그가 요순의 이상(理想)을 구현하고자 했으나 끝내 뜻을 얻지 못했던 공자와 동일시되는 것은 작자가 유연에게 본질적으로 내포된 한계와 비극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작자는 이상적인 인물로 표상되는 순과 공자, 안연에 빗댄 주인공 유연을 설정하고 그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효와 의, 인정을 함께 고려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혼탁한 조류 속에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와 간극은 그 자체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유연의 비극은 동시에 작자가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순의 형상을 소환함으로써 길을 잃은 삶을 돌파하고자 하면서도 그의 고통과 단명서사를 삽입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대한 작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절망으로 읽을 수 있다.

물론 이 단명 서사를 온전한 절망으로만 한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자와 안연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수천 년이 흐르도록 유교의 이상을 설파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쳐왔듯이 작자도 유연의 사후에 그의 영향력이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희망 또한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소저의 입을 빌린 평은 공자와 안연의 삶에 깃든 비극성과 함께 사후에 빛난 이름과 영향력까지도 차용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보면 <유효공선행록>의 작자는 자신이 처한 시대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먼 미래에 이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60) 그의 단명을 놓고 공자와 안연을 거론한 정소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문헌

- <유효공선행록>, 김기동 편, 『필사본 고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
-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학회, 2014, 35~53쪽.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15쪽.
- 공혜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간 폭력의 대물림 고찰」, 『외국문학연구』 6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29~58쪽.
-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231~256쪽.
- _____,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11~245쪽.
-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증 발현 과정과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 28,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8, 133~163쪽.
-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151~176쪽.
-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문과, 1990, 151~171쪽.
-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고소설 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3~293쪽.
- 염원희, 「국문장편소설 인물들의 갈등과 화병, 치유의 문제」, 『한국민족문화』 7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9~56쪽.
-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1991, 162~184쪽.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쪽.
-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71~199쪽.

- _____, 『대하소설 속 친동기 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39~361쪽.
-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문과, 1989, 209~229쪽.
-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223~269쪽.
-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287~324쪽.
-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별얼가문의 자기변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145~170쪽.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16쪽.
-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189~209쪽.
-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 :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13~144쪽.

ABSTRACT

On the study of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of
“Yu-hyo-kong-sŏn-haeng-lok”
through the lens of the choice of the protagonist and his early death

Hwang, Ji-hyun

In this paper the protagonist is “the person who anguished” and the meaning of his early death through the writer’s consciousness was explored, the Second coming of a Saint. “Yu-hyo-kong-sŏn-haeng-lok,” written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is a meaningful novel that illustrated the dominant ideologies and practical aspects of its era. Beyond focusing on the filial duty issues in the novel, I tried to examine the writer’s intention by analyzing the situation and selection of “Yu Yŏn.” Consequently, I have clarified in this paper that the writer had set up a corrupt time, extreme combinations of characters, and the eli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mending villain. Additionally, the protagonist was revealed as one who anguished about “the right way of life.” Following this, I explored the choice of the protagonist, the narrative strategies used to emphasize his achievement, and the role of the pain presented in the novel. Due to the desperate necessity, the writer summoned “Yu Yŏn” as the shape of a Saint in one’s ear. However, the severe pain and the early death of the protagonist can be interpreted as the writers’ criticism and the despair.

Key Words “Yu-hyo-kong-sŏn-haeng-lok”, Korean long form novel, Early death, Choice, Anguish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